

대구주보

연중 제12주일

2020. 06. 21. (가해) 제2219호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0,28)



『성 마태오의 순교』, 카라바조, 1599~1600년경, 로마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무태본당 주임 | 이민락 라우렌시오 신부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1항) 말하자면 나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 검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을 합니다. 적당한 자기 검열은 말의 수위를 조절하게 하고 말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말의 열정과 표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과도하게 계산하여, 남에게 스스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확신의 부족과 자신감의 결여가 생기게 됩니다.

신자들을 보면 직장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과도한 자기 검열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흔히 ‘나 자신도 잘 살지 못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나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착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자기 검열은 내 신앙을 숨기게 되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마태 10,32)

복음의 결말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 24,48) 복음을 증언하는 삶은 말로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태도에 있어서 신앙 안에서 늘 감사하는 생활, 겸손한 생활,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는 생활,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과도한 자기 검열로 자신을 숨기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에 생활화되고 체득되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인입니다.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필로**

괜찮아~ 원래 불안하고 그런 거야!

— 방해의 결과물들 : “불안”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극진한 돌봄 속에 건강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 젖을 물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잠자리와 온도, 습도,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젖을 물리자 곧 아기가 잠을 잡니다. 엄마는 아기를 고이 눕히고 잠시 젖병을 삶고 집안일을 합니다. 아기는 갑자기 배가 고파 잠을 깹니다. 배고픔과 선잠에 아기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워 칭얼거립니다. 엄마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자 아기는 악을 쓰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달려와 아기를 얼레고 달래며 젖을 물립니다. 아기는 다시 만족스러워졌고 금방 잠이 듭니다. 이처럼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잠자리와 기저귀가 불편하거나 몸이 아프다면 악을 쓰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이렇게 성장하며 만족과 불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불만을 피하고 만족을 획득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우는 행위, 칭얼거리는 행위, 인상을 쓰고 손발을 부들부들 떠는 행동들... 불만(족)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만족을 얻기 위해 작동되는 행위들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방어기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방어기제뿐 아니라 다양한 지성/감성/신체적 성장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는 주-양육자의 역할과 건강한 애착형성을 강조합니다. 아기는 점점 더 자라면서 불만족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자신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 울고 소리 지르고 떼를 쓰는 것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경험도 합니다. 이때 본인의 욕구대로 만족을 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 안에서 적당한 선으로 타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사색과 인지 작업을 배우며, 조금만 만족한다든지 아니면 불만을 견딘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불만은 억누르고 만족은 조금밖에 얻지 못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외부적인 압력(부정경험, 예-부모의 싸움, 비난, 욕, 대인관계실패 등)이 방어수준 이상으로 올 때 방어기제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다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만족 속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우울해... 괴로워... 불행해...’ 이때 불안을 온전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무조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족하고 싶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은 생존본능이며 향상심입니다. 사람은 불안 경험 후 ‘다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필요한 생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불안 경험이 반복되고, 만성적인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어 노이로제나 히스테리가 생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안이 인간성장에서 자연스러운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불안’을 겪습니다. 그것에 얽매어 불안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의 감정, 불안한 생각들이 문득 떠오를 때 ‘괜찮아~ 원래 불안하고 그런 거야!’라고 나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불안과 좀 친해지면 어때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깐요! **괜찮음**

교회는 야전 병원

가톨릭근로자회관장 | 이관홍 바오로 신부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가장 자주 있는 일, 그리고 가장 큰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몸이 아픈 이주민들과 난민 신청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동티모르, 페루, 에티오피아, 기니, 네팔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민과 난민 신청자들은 간단한 감기에서부터, 출산이나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아파서, 산업 재해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때로는 암이나 큰 병에 걸려서 도움을 청하러 근로자회관을 찾습니다. 건강 보험이 없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라 작은 병이라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병원 사회사업실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부탁하기도 하고, 은인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주민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아픈 이주민들과 난민 신청자들과 함께하면서 현실적으로 병원비나 치료비를 걱정할 때가 자주 있지만, 그래도 병원 측의 배려와 은인들의 도움으로 꼭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과 난민들에게는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그리고 동티모르 이주민들은 신자들의 도움을 많이 청하지만, 난민 신청자 대다수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사실 이슬람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편견에 시달리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저희 근로자회관에서는 국적이나 종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한국에 오기까지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자신의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가톨릭기관에서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고, 특히 몸이 아플 때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되니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생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가톨릭교회의 이미지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무감도 생기곤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야전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 가톨릭근로자회관을 찾는 이주민과 난민 신청자 환자들이 많을 때에는 지치기도 하고,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야전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이 완치되어 밝은 얼굴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환자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환자들은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생을 정리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다 병을 얻은 이주민들과 난민 신청자들의 모습을 거의 매일 보면서, 우리 가톨릭교회의 보편적인 사랑과 환대의 전통을 직접 느끼고, 병고에서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따뜻이 위로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필리핀**

윤봉문 요셉 (1852~1888년)



윤봉문(尹鳳文) 요셉은 경상도 경주 인근에서 윤사우 스타니슬라오와 막달레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의 가족은 1866년의 병인박해로 재산을 몰수당한 뒤 양산으로 이주하였다가, 보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거제도로 건너가 진목정(현 통영시 이운면)에 정착하였다.

요셉의 부친 스타니슬라오는 그 이전부터 비밀리에 천주교 신앙을 전하고 다녔다. 또 거제도으로 이주한 뒤에는 진 요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입교시켰으며, 이러한 인연 때문에 윤봉문 요셉은 장성한 뒤 진 아네스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1887년 겨울에는 경상도 담임 로베르(A. P. Robert, 金保祿) 신부가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기 위해 거제도를 방문하였다. 이때 요셉은 거제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로베르 신부를 안내하였는데, 그 해 거제도에서는 15명의 어른이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로베르 신부가 거제도를 떠난 이듬해 봄에 그곳에서는 박해가 일어났다. 통영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함으로써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일으킨 박해였다. 이 박해 때 요셉은 다른 교우 2명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그 혼자만 통영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모진 형벌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강요하는 배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영 관장은 이 사실을 곧바로 대구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천주교 신자들은 모두 도적과 같으니, 윤봉문을 진주로 이송하여 처형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따라 윤봉문 요셉은 진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계명을 외우면서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그를 하옥시킨 뒤 그날 밤에 옥리들을 시켜 교수형을 집행토록 하였으니, 그때가 1888년 4월 1일(음력 2월 20일)로, 당시 요셉의 나이는 36세였다.

요셉이 순교한 뒤 로베르 신부는 이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교구장에게 보고하였다.

“저는 윤 종계도 이 거룩한 순교자를 친밀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열심한 교우였으며, 비신자들의 회개를 위한 열성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그에게 눈길을 주어 여러 섬에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서 저를 돕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제게서 빼앗아 가셨지만, 그것은 당신의 충실한 벗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을 그에게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예레 20,10-13	제 2 독 서	로마 5,12-15	복 음	마태 10,26-33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6.25전쟁 70주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및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매년 6월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이며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래와 같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권장하고 6월 25일에는 주교좌 범어대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주례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기간: 6.17(수)~25(목) / 방법: 미사 전후 기도문과 함께 봉헌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 / 매일미사 191쪽)

지향: 6. 21(일) -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6. 22(월) -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6. 23(화) -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6. 24(수) -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6. 25(목) -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일시: 6.25(목) 10:00 묵주기도, 10:30 미사 /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 범어대성당 미사는 미리 신청하신분들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6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7일(토) 11:00 순례자성당		6월 23일(화) 19:30 다사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6월 후원회미사는 없습니다.			6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	—		6월 24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미사 재개에 따른 본당 내 신천지 및 유사종교 침투를 조심합시다

신천지 및 각 유사종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신자로 위장합니다. 포섭 활동을 유도하면 신천지 및 유사종교로 의심하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천지 및 유사종교의 포섭을 위한 접근은 매우 다양합니다.

포섭 대상으로 지목된 경우: 그들은 이미 '나'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후 모른척하고 접근합니다.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누구보다 나에게 잘 대해 줍니다. 마치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주는 것처럼 속이 후련해지고 편안하며 행복하고 신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에 대해 매우 많이 알고 있으면서 속인 채로 거기에 맞추어 접근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섭 대상자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들은 평범한 만남들(성당, 동네, 미용실, 헬스장,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에서 자연스럽게 대상자를 찾기 위한 정보 수집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 개인의 심리상태(속상한 일, 괴로운 일, 바라는 일 등), 연락처(가족사항, 직업 등)를 함부로 나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꼭 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교우, 친구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들의 정보수집처가 됩니다.

포섭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지인)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하여 어떤 모임, 공부, 활동을 함께 하자고 하거나 천주교 용어가 아니고 평소 듣지 못한 낯선 용어를 사용, 신부님(수녀님) 몰래 소규모나 1대1로 성경공부(세미나)를 하자고 하는 경우, 또는 종교와 관계없는 모임, 문화공연, 취미활동, 심리상담, 치료센터 등에서 친분을 맺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풀어가고, 성경 공부(세미나)를 하자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사태 후 더욱 더 교묘하게 발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QR코드를 통하여 교구청 홈페이지의 “주의! 유사종교”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올리나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공장직영도매(등고령I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서정도(벨라도) 신부
1964년 6월 21일
- 노기남(바오로) 주교
1984년 6월 25일

성소 | 피정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7.4(토) 18:00~5(일) 11: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청년 마르코 복음 통독 피정

일시: 7.11(토) 9:3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파동)
문의: (010)9861-6691

7월 평화계곡피정의집 향심 기도 피정

2박: 7.3~5 / 7.14~16 / 7.20~22
1박: 7.11~12 / 7.18~19 / 7.25~26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선착순 10명)
문의: (010)3422-758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7.3~5 / 7.27~29 / 7.31~8.2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행사 | 모임

6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28(일) 14:00
장소: 대구대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대상: 고3~대학·일반(입시반)

바느질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6.25(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교육 | 모집 | 기타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모집

전입학 설명회: 7.4(토) 14:00
여름진학캠프: 8.7(금)~9(일)
대상: 초6~중2
문의: (054)338-0530

제47차 수도생활 체험학교 모집

일시: 7.31(금)~8.2(일) 2박 3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대상: 고등학생~40세 이하 미혼 남녀
신청: (010)8353-2323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6월_신종호(분도) 신부
7월_이성웅(세례자요한)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9:00 / 목 14:00
대구CEO합창단: 화 19:30~21:0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010)3512-1565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SOS프란치스카의집(요양원) 어르신 모집

위치: 대구 동구 방촌로1길 17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대상자)
문의: 986-2077
<http://sos-silver.or.kr>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만식(도미니코), 박광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개원 40주년 기념(신자 특별 할인 이벤트)
일시: 8.3(월)~31(월)
종합검진센터: 650-4114, 4123
일반검진센터: 650-4590, 4591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구원모
이태운(미카엘) · 김진선 · 이혜미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의학박사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한투어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색을 띠주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지간신경통,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진구)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